

베일 벗는 ‘흑인 인어공주’

디즈니 실사 뮤지컬영화 이달 개봉
캐스팅부터 수년간 인종·외모 논란
‘홍행 성공’ 지배적...국내는 ‘글쎄’

디즈니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가 이달 개봉을 확정 지으면서 최초의 ‘흑인 인어공주’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캐스팅 당시부터 수년간 이어져 온 인종·외모 논란을 잠재우고 보란 듯이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8일 영화계에 따르면 립 마셜 감독이 연출한 ‘인어공주’는 오는 24일 국내에서 개봉한다. 북미에서는 26일(현지시간) 극장에 걸린다. 월트디즈니 컴퍼니가 1989년 내놓은 동명 애니메이션을 뼈대로 한 이 작품은 바다 왕국의 딸인 인어 에리엘이 인간인 에릭 왕자와 사랑에 빠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원작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사랑하고 참체에 빠진 월트디즈니컴퍼니에 제2의 전성기를 열어준 작품이다. 개봉 당시 전 세계에서 2억3500만달러(3120억여 원)의 이익을 거두면서 크게 흥행했다.

영화화 전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낮았던 인어공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주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40여년 만에 ‘인어공주’를 실사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기대감이 모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인어공주 역에 흑인 배우 헬리 베일리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디즈니의 모험에 우려를 제기했다. 베일리의 외양이 수십 년에 걸쳐 각인된 ‘백인 인어공주’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된다는 이유였다.

온라인에서는 베일리를 인어공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NotMyAriel’ (Not My Ariel·내 에리엘이 아니다) 해시태그(#) 문구가 번져나갔다. 디즈니에는 지나치게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을 추구하느라 개연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인종뿐만 아니라 베일리의 외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디즈니 공주 중에서도 최고 미인으로



오는 24일 국내에서 개봉하는 영화 ‘인어공주’ 주인공 역의 배우 헬리 베일리.

짧혀온 에리엘과 비교하면 베일리의 외모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베일리와 흑인 인어공주를 지지하는 팬들도 많다. 이들은 베일리를 향한 비판은 일종의 ‘백래시’(backlash·반동)이며, 그 이면에는 인종차별적이고 외모지상주의적 시각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디즈니 공주 = 백인’ 공식을 깨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실제로 ‘인어공주’ 예고편이 공개되자 이에 감명한 흑인 소녀들의 반응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디즈니와 인어공주의 이름값이 워낙 강력한 만큼 흥행에는 성공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최근 여러 디즈니 실

사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성공을 거뒀고, 베일리는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당신 세계의 일부’(Part of Your World)를 되살리기에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며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넘어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국내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 북미에 비해 국내 관객에게는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성공한 ‘미녀와 야수’와 ‘알라딘’ 공주는 전형적인 미인이자 스타성이 뛰어난 엠마 왓슨과 나오미 스콧이었다”며 “베일리는 이들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낮은 데다 낮은 캐릭터(흑인 공주)까지 맡았기 때문에 이전 디즈니 실사 영화만큼의 흥행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BTS 정국 ‘세계신기록’

K팝 솔로 최단 10억 스트리밍...블랙핑크 리사 기록 2일 단축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최단기간에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K팝 솔로 가수’로 ‘월드 기네스 레코즈’(World Guinness Records)에 등재됐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월드 기네스 레코즈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3월 27일 단지 세 곡으로 10억 스트리밍 기록을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정국은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아직 공식 솔로 음반을 낸 적이 없다. 그는 ‘스테이 얼라이브’(Stay Alive),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Dreamers)로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정국이 10억 스트리밍에 걸린 기간은 409일로, 블랙핑크 리사가 보유하던 이 부문 기록을 2일 단축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 2년’ 난민 실상 알린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18일 특집 다큐...연대 호소 메시지 등



미얀마 난민학교 수업 장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제공〉

미얀마 쿠데타 2년을 맞아 난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특집 다큐가 제작돼 눈길을 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특집 다큐멘터리 ‘포산과 바이올린’(제작·연출 김선균, 노진표)을 오는 18일(오후 5시) 1시간 동안 전국에 방송한다.

특히 취재진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미얀마와 국경이 맞닿은 태국 북부지역 폐쇄를 방문해 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처한 참상에 대한 증언을 생생히 담아냈다. 난민들은 군부의 잔인한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주민들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쿠데타 이후 국경지대로 피난 온 난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족통합정부(NUG)의 나우 수잔나 흘라홀라 소 여성청소년부장관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진행한 단독인터뷰를 통해 광주 시민에게 감사와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국 땅인 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음악과 교육, 물자지원으로 희망을 일궈나가는 미얀마 난민들의 모습을 통해 43년 전 5·18 당시 광주와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광주가 이들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다큐를 기획한 김선균 보도제작국장은 “쿠데타 2년을 맞은 미얀마인들의 모습은 43년 전 광주의 그날과 닮아 있었다”며 “이번 다큐가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의 끈을 더욱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서 ‘남성해방’ 저자와 북토크

여성가족재단, 23일 오후 2시 팬트리호트 초청

네덜란드 작가 옌스 판트리흐트는 ‘남성이 남성성이라는 억압에서 해방돼 다른 젠더와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맺으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책 ‘남성해방’은 옮겨나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남성성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남성해방은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은 무엇이었을까. ‘남성해방’의 저자 옌스 판트리흐트 초청 북토크가 열린다.

크가 열린다.

광주여성가족재단(김경례 대표이사)은 오는 23일(오후 2시) 재단 3층 북카페(은새암)에서 옌스 판트리흐트 초청 북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북토크는 ‘Breaking the Man Box_남자 상자 깨기: 새로운 남성성으로 성평등 실현’을 주제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남성의 역할과 유럽의 사례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연 남성성이란 무엇이며 여성과 남성은 적대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남성 해방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옌스 판트리흐트 초청 북토크가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성과 남성의 소통과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처럼 마련된 해외작가 초청 북토크인 만큼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일 접수 가능하며 북토크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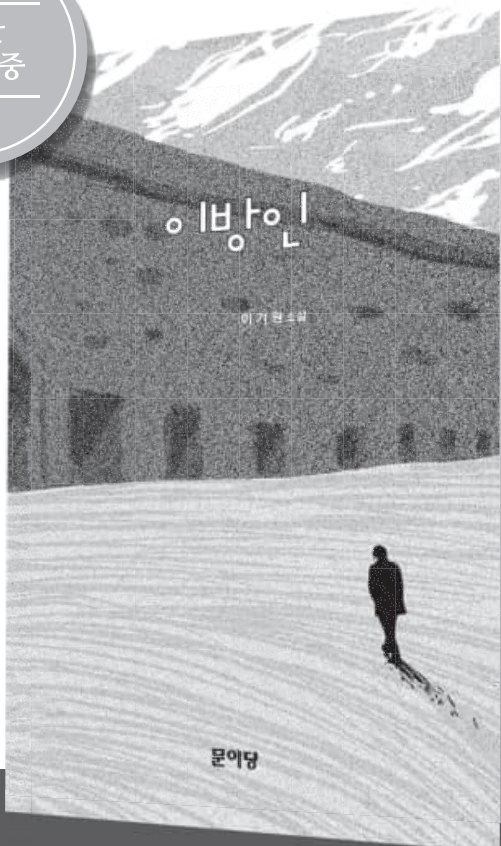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문이당 | 15,000원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